

## 친환경축산의 비전과 실천방향



석희진  
(사)친환경축산협회 회장

최근 우리축산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은 각국과의 FTA 진행과 국내 소비시장 침체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 가격 하락, 구제역 등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악재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더구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은 국가 재정과 축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고 축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부정적으로 바꾸어놓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축산업도 이전 현재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축산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서는 '친환경축산'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국내 축산업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축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립된 개념을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산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축산인과 소비자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친환경축산이 무엇인지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보전, 자원순환, 동물복지, 경관보전 등 가축 사육단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협의의 친

환경축산 개념을 보완하여 사육 이전단계와 사육 이후 단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새로운 친환경축산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즉, 동물약품, 사료첨가제, 축산기자재 등 사육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육 이전단계의 모든 축산관련 산업은 물론 도축, 집유, 집하, 가공, 운반, 보관, 판매 산업 등 친환경적으로 사육된 가축을 도축·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 가치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도축단계 이후의 축산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축산 전과정에 친환경축산 개념을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친환경축산협회가 최근 60여명의 축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친환경축산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광의의 친환경축산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은 친환경축산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위원회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보완과정을 거쳐 친환경축산업의 개념을 '환경 친화적으로 건강하게 가축을 사육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

산·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했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친환경축산 발전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협회를 비롯한 축산업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축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친환경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국내 축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농업전체에서 차지하는 축산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과 축산업의 비전 제시를 위한 핵심 키워드가 친환경축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친환경축산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친환경 축산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진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친환경축산을 육성·발전시켜 나가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축산육성법 제정 등 친환경 축산분야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현재 친환경축산과 관련된 인증 내지 지정 제도가 무항생제 및 유기축산물, HACCP,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는 물론 우리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산업계 종사자조차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친환경축산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 및 연구계,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이러한 인증제도의 통합방안 모색 등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축산 인증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친환경축산과 관련된 인증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증농가들의 적정 출하가격 보장을 위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기반 확충 등 유통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축산의 개념을 적극 알리는 한편, 환경 친화적으로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는 친환경축산물이 관행축산물과 확실히 차별화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여 소비자 스스로 적정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판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친환경축산물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어야만 친환경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친환경 축산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축산 활성화를 위한 축산관련단체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우, 한돈, 산란계, 육계, 오리, 한닭 등 각 축종별 생산자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안전축산물 생산과 소비촉진에 앞장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개방화시대를 맞아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국내산 축산물이 수입축산물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친환경축산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개별적 홍보보다는 친환경축산 전문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홍보창구 일원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친환경축산은 우리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축산농가를 비롯한 모든 축산인들이 장·단기 친환경축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는 등 글로벌시대에 우리 축산업의 활로를 스스로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